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9 장



불길에 휩싸인 가르디아 수도원 유적지에서 서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었다.

이른 아침 달빛의 마지막 잔잔한 빛 아래,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 밤 수도원 부엌에서 가져 온, 어찌나 부끄럽지만 신의 선물 같은 음식들로 가득 찬, 허리가 굽은 니콜라스 수사는 어깨에 걸친 수도복 안에 가득 찬 식량을 짊어지고 있었다.

니콜라스는 돌투성이 능선 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가 무릎에 기대앉았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그의 숨 소리는 가쁘고 김이 서렸다. 저 멀리, 오래전에 말라버린 고대의 강바닥 너머로 그가 오래전에 발견했던 동굴 입구가 보였다. 그는 그곳을 '산의 입구'라고 불렀다. 그는 능선을 따라 옆으로 내려가 돌로 뒤덮인 광활한 계곡을 가로질러 거대한 검은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도사님?" 어둠 속에서 소년의 쾌활한 웃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올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니콜라스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며 "나사로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수도사가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나사로는 돌 모퉁이를 쓴살같이 지나쳐 수도사와 세계 부딪쳤다. 수도사와 종자는 둘 다 땅바닥에 쓰러졌다.

마치 치즈 덩어리가 동굴 바닥을 가로질러 흔들리듯 흩어졌다.

“맙소사! 나사로!” 니콜라스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네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잖아—오, 안 돼!” 수도사는 바닥을 기어가며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임시로 만든 자루를 뒤졌다. 그 안에서 그는 아직 봉인된 피가 담긴 병을 발견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병에 입맞춤하고는 조심스럽게 소지품 사이에 다시 넣었다.

“수도사님—니콜라스? 죄송합니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즈 덩어리를 가져오며 물었다. “오디노 수도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는 걸 도와줘. 손으로 더듬어 봐.”

라자로는 안에 든 병을 조심스럽게 치즈를 자루에 넣었고, 천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다. “수도사님, 제가 그것들을 모으겠습니다.” 라자로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지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니콜라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산 저편에 나무숲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도사는 갑자기 일어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었다.

“먼저 불이 필요해.” 니콜라스는 동굴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나사로는 마치 조각상처럼 자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것과 함께.

“나사로야, 나와 함께 가자.”

“예,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시선을 돌려 니콜라스를 따라 산구덩이를 빠져나와 달빛에 비친 산비탈을 따라 걸어갔다.

“내 뼈까지 얼어붙었어. 우리처럼 소박한 옷차림에는 이 숲 안개가 너무 가혹하군.” 니콜라스는 손을 재빨리 비비고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작은 등잔과 기름, 밧줄 심지어, 그리고 부싯돌이 든 부싯깃도 가져왔어. 자, 이제 우리는 ”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 끈질긴 습한 추위를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수도사님.”

마침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사로는 니콜라스는 커다란 바위 두 개 위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웠다. 주황빛 불빛이 한기를 몰아 내며 동굴의 광활하고 불규칙한 지하 구조를 드러냈다. “드디어 불이 났군.”

니콜라스는 손을 녹이며 치솟는 불꽃을 숭배하듯 바라보았다. 그는 쌓여 있는 물건들을 훑듯 쳐다보았다. 그는 옆에 연료를 놓고는 신중하게 나뭇가지 몇 개를 골라 불길에 더했다.

라자로는 불꽃 사이로 니콜라스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를 자세히 살피보았다.

“수도사님, 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니콜라스는 껄껄 웃었다. “사라졌군. 내 부츠 마음에 들어?” 니콜라스는 불빛에 비친 부츠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렇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거 몰랐죠 ?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님.”

“제발 저를 니콜라스라고만 불러주세요, 라자루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 니콜라스, 너 신발 만들 줄 알아?"

"정말 그렇군요 . 최고급 구두입니다. 수도원에 오기 전에 만든 마지막 구두예요 ." 니콜라스는 자신의 구두를 살펴보았다. "제 옛날 구두 수선공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

“그리고 싶습니다.” 라자로는 자신의 더러운 장갑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는 바위 위에서 몸을 움직여 무릎에 팔을 얹고 불꽃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가 훨씬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과 함께 부르고뉴 남쪽 끝자락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마을 에프라임에서 살았습니다 . 아버지는 ”

그는 마을의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할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가게에서 신발을 만들고 수선하며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제 형이 그 일을 이어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거래.”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병약해지셔서 더 이상 가게를 관리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게 운영은 우리에게 맡겨야 했죠. 정말 끔찍했어요. 거의 모든 일이 제 몫이었거든요."

나사로가 물었다. "네 형은 그것들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냐?"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그랬죠 . 진심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어 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강했고요. 하지만 신은 그를 구두 수선공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된 수선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거의 항상 제가 뒤따라가서 그가 고치려 했던 신발을 다시 손봐야 했어요. 그렇게 꽤 오랫동안 일을 했고, 대부분 밤늦게까지 일했죠."

“아버지께 말씀드렸니?” 라자로가 물었다.

“아니요.” 니콜라스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계셨고, 형과 저는 서로에게 앙숙처럼 굴었고, 가게는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차마 아버지를 폐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라자루스는 니콜라스의 억지 미소 위로 솟아오르는 눈물을 발견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종종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 가게로 걸어갔는데, 마지막 여정에서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가게를 지나쳐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게 에서 멀어져 마을 밖으로 , 결국 부르고뉴 밖으로까지 걸어갔죠 ."

니콜라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부츠 말고는 모든 걸 두고 왔어."

“나는 한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계를 위해 여러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꿈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고 제 발걸음을 가르 디앙 수도원 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수도원 담장 안에서 바깥세상에서보다 더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으며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하죠?” 라자로가 물었다.

"음,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형에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답장이 왔더군요. 제가 떠난 직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은 빚 때문에 가게를 팔았고 ... 음, 다시는 편지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 그 모든 일에 대해 나를 탓해요.

니콜라스는 몸을 숙여 불을 더 지폈다. "오디노가 모든 걸 말해줬어, 라자루스. 네가 왜 두건을 쓰고 다니는지 알아 ." 라자루스의 고개가 순식간에 뒤로 젖혀졌다. 두건의 생기 없는 눈구멍 너머 , 불빛이 완벽한 각도로 반짝이는 그 사이로 니콜라스는 깊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푸른 눈동자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 오디노와 네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 비밀은 내게 안전하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불길 속으로 돌아섰다.

"나사로, 내게 편하게 이야기해도 좋다. 나를 수도사라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해라."

니콜라스는 나뭇가지 하나를 불에 꽃고 바위에 기대앉았다.

“네 아버지와 오디오는 내게 네가 내가 도착하기 직전에 가르디앙 수도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말했지. 그리고 네가 공기병에 걸려 지하 묘지를 떠날 수 없었다고도 했고.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지, 그렇지?”

마침내 나사로는 고백했다. “아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다른 수도사들에게 내 진실을 말하면 그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당신의 병은 그가 주장한 것처럼 야외 활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햇빛 때문이었죠. 당신은 심각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반이 당신의 병을 기록하기 위해 가르디앙 수도원으로 부른 의사는 ”

주지 스님 말씀이시죠?

“저는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아버지가 누군가를 불러오도록 하셨을 거예요.”

“이제야 알겠군. 나사로, 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 그들은 틀림없이 너를 죽였을 거야.”

지금 돌아켜보니, 네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구나, 라자루스야.

“네, 그랬어요. 제가 그를 사랑하니까요.”

“네 아버지는 너를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숨겨 두었던 거니?”

“그는 성당에서 저를 발견하고 지하 묘지, 바스톤 지하 묘실에 숨겨주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 어떻게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지?"

“그는 내가 침묵을 지키고 납골당 문을 잠가 두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어?! 넌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줄 알았어?"

"아니요. 아버지께서 빨리 가르쳐주셨어요."

“아마도 당신은 빨리 배웠겠죠. 말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까?”

“아마 1년쯤 됐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내게 가면과 옷을 만들어 주시고는 북쪽 수도원 문 밖에서 버려진 나를 발견한 척하셨지. 그리고 나는 아픈 척했어.” 니콜라스는 라자루스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턱을 쓰다듬으면서 불을 더 지폈다.

"너는 다른 녀석들과는 좀 다른 것 같구나. 음, 그러니까, 네 모습과 체격을 보니 짐승이라기보다는 어린 소년 같군. 실례지만, 라자루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열세 살이니?"

“나는 겨우 7년밖에 늙지 않았어.”

니콜라스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저었다. "놀랍군. 어쩌면 네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는 네 남다른 체격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군. 네 아버지는 정말 영리하셨어. 이제야 네 등이 수도원에서 떠돌던 것과는 달리 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군."

그것들은 접혀서 숨겨져 있는 날개들이죠, 그렇죠?

라자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니콜라스."

니콜라스는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니, 앓으렴! 네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앓으렴, 아들아." 라자로는 앉았다.

“라자루스, 오랫동안 자네를 존경해 왔네. 자네는 다른 시종들과는 전혀 달랐지. 그들 대부분은 신앙과 의무에 의문을 품고 사소한 일로 다 투곤 했지만, 자네는 언제나 침착했고, 자신의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네.”

라자로는 동굴 바닥에 널브러진 식량 자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디노 수사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대신 왔군요. 어쩌서 그의 피를 병에 담아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의 냄새가 나. 틀림없이 오디노의 냄새다. 그는 왜 자신의 피를 흘렸지? 그리고 왜 네가 그 피를 가지고 있지?”

니콜라스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이며 자루와 나사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바위 위에서 똑바로 일어섰다. "나사로,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오디노 신부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라자루스가 물었다.

"맞아요, 그는 나사로예요."

라자로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어떻게?"

“저 선장, 바로 네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야.”

“그는 왜 그들을 죽였을까?”

"이반과 오디노가 너를 지켜줬으니까."

동굴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은 불꽃을 응시했다. 라자로가 말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선장을 죽여야겠군."

“안 돼, 나사로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눈에는 눈!” 라자로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

라자루스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아니, 하지만 난 그걸 느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디노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야?”

니콜라스는 일어서서 자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 안을 뒤적였다. " 지도를 읽을 줄 아나 ?"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셨어요."

“지하 묘지 지도요?”

“필사실에서 그 지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니콜라스는 자루에서 접힌 양피지 한 장을 꺼냈다.

“어떤 구체적인 지도를 보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모두 다요."

"아니, 네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몇 명이나 데려왔니?"

“한번은 아버지께 새 지도를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필사실에 있는 지도는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니콜라스는 일어서서 머리를 굽적였다. " 전부 다라고? 필사실에 지도가 수백 장은 있을 텐데 . 전부 다 말이야, 세상에." 니콜라스는 동굴 바닥을 바라보며 다시 턱을 쓰다듬고는 물었다. "말해 보시오, 라자루스. 그 많은 수도원 지도 중에서 이탈리아 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기억 나소 ?"

라자로는 남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레온 만과 티레니아 해를 건너 사르디니아 섬 동쪽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부츠 모양처럼 생겼어요."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맥이 아래쪽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움브리아 주 또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칸첼로 수도원은 중심부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리고는 라자로를 더욱 시험해 보았다.

그는 교묘하게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쩌면 자신의 지리적 기억에 의문을 품게 하려는 의도로 능력을 발휘하며 이렇게 물었다. "스코틀랜드 왕국은 어찌죠?"

라자로는 반대쪽 북서쪽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입니다. 짧은 강을 건너면 되고, 영국 땅 북쪽입니다."

"나사로야, 내 집은 어디냐?"

"에프라임 마을은 부르고뉴 남쪽에 있습니다." 라자로는 약간 동쪽을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라트는요?"

"저쪽입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놀랍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군요."

"어찌하여 그런 곳들에 대해 내게 묻느냐?" 라자로가 그에게 물었다.

니콜라스는 심호흡을 하고 바위로 돌아가 라자루스에게 접힌 양피지를 건넸다. 라자루스는 양피지를 펼쳐 살펴보았다. 양피지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바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이 지도가 기억나네요."

"같은 수도원 필사실에서 나온 것이니 그럴 만도 하겠소. 내 말을 들어보시오, 라자루스."

저는 단순히 식량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디노 수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델 칸첼로 수도원 으로 가기를 바라 는데, 당신은 이미 그곳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테소네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매우 박식한 나이 지긋한 수도사 살비티노 를 불러오십시오 .

나사로는 이반과의 대화, 편지, 그리고 자신이 빚진 호의를 떠올렸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탈리아에 간다고?!" 라자루스가 말을 끊었다.

"라자루스, 내 말을 들어보시오. 가르디앙 수도원의 문석이 열렸다고 그에게 전하십시오 . 그리고 당신이 이 문석에 새겨진 이반 고구 수사의 아들이라고 전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을 알아볼 것이요. 또한, 내가 피가 담긴 병을 가져왔소. 그것을 그에게 전해 주시오."

살비티노에게 가서 '이건 오디노 수사의 피야'라고 전해. 그러면 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거야."

"아니요. 안 돼요." 라자로는 더듬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니콜라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살비티노 수사를 모셔와서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수도원으로 데려오십시오. 오디노 수사는 자신이 수도원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최고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급 평의회 위원이자, 가르디앙 수도원과 칸첼로 수도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수도승일지도 모르는 그는, 번역된 비문을 통해 문돌을 제대로 다시 단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관한 일이라면, 그 술병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되, 도중에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라자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지도를 동굴 바닥에 던지고 불에서 물러나 니콜라스에게 돌아섰다. "너무 멀어요. 아버지께서 태양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이런 걸 잘 아니까 가서 그 수도사를 데려와서 술병을 가져다줄 수 없나요?"

"안 됩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숙녀분이세요?"

"기다림 속에 있었던, 나의 예비 아내 마르다. 자, 이리 오너라. 나사로, 앉으렴.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하지만 당신은 독신 서약과 금욕 서약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불 옆으로 돌아가 앉았다.

니콜라스는 라자루스의 질문을 일축했다. "그녀는 무라트에 살고 있는데, 마을의 돌아가신 구두 수선공의 미망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에 대해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싶군요." 라자로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뜻밖의 우연한 사건으로 마사를 만났어요." 니콜라스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 히 주교님이 저를 새로운 마을 교회로 보내실 때마다 저는 늘 동네 구두 수선 가게에 끌렸거든요. 제 안에 있는 굳건한 구두 수선공 기질 때문이죠."

약 1년 전, 수도원장께서 저를 무라트로 보내 지역 교회의 보수 공사를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제 안에 숨어있던 호기심 많은 구두 수선공 기질이 발동하여 동네 구두 수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던진 부츠가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깨어나기 전까지 기억하는 마지막 것은 그 신발의 굽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턱을 쓰다듬었다. "제 위로 천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제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르타가 축축한 수건으로 부어오른 제 코를 닦아주고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부츠를 문에 던지려고 했는데, 내 얼굴이 가로막았더군요.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밤에 다른 남자가 와서 신발을 수선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직접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도 모임에 소문이 퍼지면서 몇몇 여인들이 몰래 그 남자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게에 도착하기 직전에 몇몇 여인들이 가게를 떠나면서 그녀가 진짜 신발 수선공이라고 비난하고, 손님들에게 여자가 신발을 수선한다고 알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수선이 필요한 신발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유심히 감시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면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내 안의 구두 수선공 기질이 그녀를 구해냈죠. 그녀에게 문을 활짝 열라고 하고는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동안 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쿵쿵 두드리고, 쿵쿵거리고, 온갖 소음을 내면서 말이죠."

니콜라스는 웃었다. "그들 얼굴 좀 보셨어야 했는데. 가게 안은 입을 찹 벌리고 호기심 많은 여자들로 가득 찼지. 나는 못 본 척하며 신발 한 짝씩 수선했어.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치 든든한 말처럼 능숙하게 수선했지. 그중 한 명이 뻔뻔스럽게도 마사의 신발은 항상 내가 수선해 왔다고 묻는 거야. '당연하죠, 아가씨.'라고 대답했지. '아니면 신발이 저절로 고쳐지는 줄 아셨어요?' 감히 수도승에게 더 이상 질문할 엄두도 못 내는 모양이야."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마사는 그들에게 '구두 수선 신부님'을 위한 신발이 더 있는지 물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그들의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저는 웃음을 참으려고 등을 돌렸어요."

"니콜라스,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라자로가 끼어들었다.

니콜라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글쎄, 마사가 쓰러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지." 늑대들에게로.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할 때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 나사로, 난 거짓말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해야 했던 거짓말 중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었지."

"어떻게 그렇죠?"

"마르타와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팔고 저와 함께 부르고뉴에 있는 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과 화해하고 우리 셋이 함께 구두 수선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아버지의 옛 가게도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제 서약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라자로. 내가 먼저 사제가 됨으로써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주님은 내가 수도사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지. 주님은 내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수도원 담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나사로야, 주님은 종종 특이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나조차도 그분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르다가 나를 부츠로 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내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내 귀환을 반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마사를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지 마르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수도사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나사로처럼요. 저도 늘 같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라트의 여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수도사님?"

니콜라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그는 점점 더 짜증이 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해 보시오, 나사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당신이 수도원에 거짓말을 하고 공기 감염증에 걸린 척했을 때, 당신은 그분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자로는 고개를 떨궜다.

"나사로야, 나는 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너에 관한 그의 판단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묻고 싶다. 어째서 네 아버지가 너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예요. 그분은 제 아버지세요."

"마르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르타에 대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거짓말이 아닌가? 당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그 행동은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다. 자네는 아직 배울 것이 많네, 나사로."

"아마도요." 라자로는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예전에 진리를 맹세했던 한 죄수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 죄수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 안의 가난한 사람'이라고만 밝혔다. 라자로는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진실을 고백했고, 그 때문에 '뼈까지 불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석은 뭐냐, 나사로?"

"모르세요?"

"저는 하급 평의회 수도사도 아니었고, 그들의 문서를 볼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도원의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수도사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문이지만, 좀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으로 가라는 말이야?"

"예."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자루스는 몸을 뒤척였다. 니콜라스의 끊임없는 질문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오랜 기간 하급 평의회 고위 수도사였던 이반과 오디노는 수도사들끼리만 은밀히 속삭여야 할 그런 사안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을 것이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라자루스는 니콜라스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다.

니콜라스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수도원 경내에서, 그녀는 꿈속으로 몰래 숨어든다. 이것은 문석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녀는, 음... 니콜라스, 내가 마운틴 마우스에 숨어 있다는 걸 병사들에게 말하면 안 돼."
너?"

"걱정하지 마, 라자루스. 난 수도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곳은 화재와 붕괴로 완전히 파괴됐거든."

라자루스가 끼어들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살비티노 수사를 데려오라고, 문돌을 닫으라고 전해야 해요! 수도원에 아무도 없나요?"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이 불에 탄 수도원 벽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겠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옥이나 지옥문, 그리고 내가 간신히 탈출했던 무자비한 병사들 무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아니, 난 무라트로 가서 마르타를 데려올 거야. 그리고 이 악한 곳을 아주 멀리 떠나버릴 거야."

“문설주가 열려 있는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합니다. 제가 당신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바로 제가 오디노에게 동굴로 가서 당신에게 식량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말했고, 당신이 알아줬으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거의 모든 것들요.

더 있습니다. 오디노 수사님께서서 제게 당신에게 약속을 부탁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살비티노 수사를 데려와 열려 있는 수도원 문돌 앞으로 데려와 그가 다시 문을 닫도록 해주십시오."

“내 말이요?” 나사로는 바위에서 내려와 일어섰다. “나는 그 말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오디노는 자네가 아버지처럼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했었네. 라자로, 그가 내게 속삭인 마지막 말이 바로 그거였어. 자네는 아버지처럼 될 거고,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말이지."

"너무 심하잖아."

“알겠습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숙이고 불꽃을 응시했다. 라자로의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뭘 이해하라는 거야?” 라자로가 마침내 물었다.

"오디노가 부탁하더라도, 마르타 때문에 라도 난 못 할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문돌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야?” 라자로가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다.

“나는 오디노가 내게 기대했던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선택을 내렸으니, 안타깝게도 문석은 그대로 남아있겠구나.”

"하지만 니콜라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빛 속을 걸을 수 없어요. 이탈리아 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멀어요. 오디노 신부님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세요. 너무 과분해요, 신부님!"

니콜라스는 고개를 들어 라자로와 눈을 마주쳤다. "그분은 네가 걸어서 이탈리아까지 가길 바라신 게 아니었어." 동굴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사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시도해 본 적 있느냐?”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니콜라스는 딸감 더미에서 새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불 한가운데에 꽂고는 조심스럽게 돌려 활활 타오르게 했다. “내가 네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니콜라스는 불붙은 햇불을 들어 올리고 일어섰다. “가자.” 그는 몸을 돌려 동굴 깊숙이, 좁은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사로도 그를 따라갔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도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산의 입구," 라자루스가 덧붙였다.

"너도 봤어? 바위에 비친 얼굴 말이야?"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왜 수도원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을 하셨습니까?"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제 자신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까?" 나사로가 그에게 물었다. 니콜라스는 그의 말 속에 담긴 비꼬는 어조를 알아챘다. 단어.

"나는 대신 산의 입구를 찾았어." 니콜라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동굴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니콜라스는 몸을 숙인 채 햇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고, 라자로는 그들 사이의 낮은 바위 천장을 경계하며 뒤따랐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앞으로. 오나라."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자루스가 투덜거렸다. 니콜라스는 껄껄 웃었다. 두 사람은 기어갔다.

통로를 따라 나아갔다. 마침내 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동굴이 드러났는데, 축축한 공기 속에는 톱 쏘는 냄새가 가득했다. 바닥을 비추는 원형의 빛을 따라 그들은 동굴의 중심부로 걸어갔다. "이 냄새는 뭐지?" 라자로가 물었다. "뭔가 안에 있어." 라자로는 어둠 속을 살폈다.

"그래, 네 선생님들이지. 그분들이 네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라자루스." 니콜라스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누가? 어떻게?"

"최고의 방법이지." 니콜라스는 손전등을 높이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는 큰말굽박쥐로 가득 찬 높은 동굴 천장이 드러났다. 라자루스는 경외감에 휩싸여 동굴 위쪽의 거대한 박쥐들을 내려다보았다. 만 개의 반짝이는 검은 눈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쥐인가?" 라자로가 물었다. 박쥐 몇 마리가 천장에서 떨어져 동굴 주위를 맴돌았다.

"봐!" 라자로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고 있어!"

"네, 맞아요. 박쥐예요. 박쥐는 날아다니잖아요. 해가 지면 동굴에서 나와요. 먹이를 먹고 새벽 전에 돌아와서 쉬고 있죠. 저는 항상 박쥐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박쥐는 새 같군." 라자로는 최면에 걸린 듯 천장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박쥐는 새와 다릅니다. 박쥐는 새들이 쉬는 밤에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낮에는 박쥐는 새들이 날아다닐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새들은 번갈아 가며 하늘을 지배한다."

니콜라스는 웃었다. "내가 찾았어. 오디노가 네가 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가져다줬지." 니콜라스는 천장을 응시했다.

"이미 죽어있었나요?"

"네, 수도원 길을 따라 바위들 사이에 놓여 있었죠. 저는 그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죠."

"햇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자루스가 물었다. 니콜라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라자루스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라자루스, 내가 더 높이 들어줄게." 니콜라스는 천장을 더 잘 비추기 위해 손전등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

"제가 햇불을 잡아도 될까요?" 라자루스가 다시 물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숙였다.

"원하신다면요." 니콜라스는 그에게 불붙은 막대기를 건넸다. 라자루스는 막대기를 높이 들고 동굴 안을 걸어 다니며 천장을 살펴보고, 니콜라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럼 개네들은 밤에만 날아다니는 거야?" 라자루스가 그에게 되물었고,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동굴.

"그때에야 가능하죠." 니콜라스가 대답했다.

얼마 후, 나사로와 니콜라스는 동굴 밖으로 나와 불을 지폈습니다.

"나사로야, 오디노를 위해서 다시 묻겠다. 자네는 그렇게 하겠나?"

"나는 박쥐가 아닙니다." 라고 나사로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디노는 박쥐에게 그런 걸 절대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니콜라스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제가 오디노에게 마르타와 수도원을 떠나려는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실패하는 것이, 약속을 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아시다시피, 라자루스, 명예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분이 자네에게 부탁한 것은 기껏해야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뿐이었네. 한 번만 더 대답해 주면 오디노 수사의 마지막 부탁으로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겠다.

"이탈리아는 너무 멀리 있는데, 태양은 또 어디 있지?" 라자루스는 동굴 입구를 훑듯 바라보았다.

"나사로, 네 대답은?" 침묵이 흘렀다.

나사로는 "저는 네." 라고 대답했다. 나사로는 동굴 바닥에서 발 장갑 옆에 놓인 지도를 집어 들고 살펴보며 "약속 드리겠습니다. 수도사를 모셔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니콜라스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뿐이야."

"훌륭한 시도였소. 이반도 자네를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라자루스는 코를 훌쩍였다. 그때 서야 니콜라스는 라자루스가 가면 아래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니콜라스가 물었다.

"별거 아닙니다, 수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자로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살비티노 수도사를 모셔오겠습니다. " 그가 게이트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소년은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을 닦았다. "배고프세요? 먹을 건 많아요."

"그렇습니다." 라자로가 인정했다. 니콜라스는 임시로 만든 자루로 다가 가 고기와 빵을 천으로 뭉쳐 꺼냈다. 그는 물주머니를 가져와 라자로의 무릎에 저녁을 차려준 후 자리로 돌아갔다.

"먹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라자루스는 수도사의 텅 빈 손과 무릎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식량은 네 것이다. 내가 보기엔 한 달 치 생활비 정도 될 것 같으니, 아껴 쓰도록 노력해라." 라자로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자, 어서 먹어라!" 소년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나사로는 저녁을 먹었고, 니콜라스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나사로는 식사를 마치고 물 주머니에 마개를 다시 닫았다. 니콜라스는 그것을 자루에 넣었다.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식사와 함께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배가 든든해질 겁니다." - 니콜라스 지시를 내리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나사로가 뒤따랐다. "그러겠습니다."

"자, 나사로야, 이제 내가 무라트로 갈 때가 되었다. 당분간 산구에 안전하게 머물러라. 그곳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딴 곳이다. 한 달 동안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네게 주신 날개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라. 하늘의 박쥐들을 보고 그 사용법을 배우도록 하라."

"오늘 밤 머물고 싶지 않으세요?" 라자로가 그에게 물었다. "꼭 주무시면 상쾌해질 텐데요." "아니, 나사로야, 나는 가야 해. 내 마르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네는 잘 해낼 거야. 난 확신해." 나사로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궜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포옹했고, 라자루스는 니콜라스가 능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동굴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불 옆으로 돌아가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더 던져 넣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몸을 녹이며 박쥐들과 자신이 수도사를 데려오겠다고 했던 엄숙한 약속에 대해 생각했다. 불꽃에 시선을 고정할 채, 라자루스는 마침내 자신의 목에 걸려 있는 이반의 나무 십자가를 찾았다. 그는 십자가를 꺼내 아버지처럼 손가락 사이로 굴러 보았다.

불길 속에서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른 나뭇가지의 갈라진 틈으로 기어 나오는 검은 딱정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벌레는 춤추는 불꽃 사이를 조심스럽게 맴돌며 불타는 가지를 따라 재빨리 내려갔다. 나사로는 그 벌레가 차가운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동굴에서 나와 더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멈춰 서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동굴 입구를 향해 날아갔다. 따뜻한 옷자락과 피곤한 팔다리, 그리고 만족스러운 배로 그는 앉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머리를 까딱거리며 잠이 들었다가 핵 깨어나는 것을 반복했다. 마침내 따뜻한 불빛을 뒤로하고 벽의 좁은 틈새를 찾아 그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믿음직스럽고 익숙한 공간을 찾아 몸을 맡겼다.

꿈임없이 요동치는 꿈의 세계.

~*~

다음 날 대부분의 시간을 나사로는 자신의 새로운 거처, 즉 구불구불한 복도와 울퉁불퉁한 바닥, 서로 연결된 동굴로 이루어진 검은 지하 묘지를 탐험하는 데 보냈다. 물방울 떨어지는 냄새와 소리에 이끌려 그는 산비탈 높은 곳으로 뻗어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 올라갔다. 통로는 작은 동굴로 이어졌는데, 그곳 바닥의 대부분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채워진 얇은 웅덩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사로는 하루 동안 여러 번 눈을 가늘게 뜨고 동굴 입구 밖을 내다보았다.

라자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풍경을 둘러보며 옷자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메마른 돌계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를 느꼈다. 그는 식량을 챙겨 산속 깊숙이, 좁은 통로를 지나 박쥐 동굴로 들어갔다.

해 질 무렵이 되었다. 라자로는 동굴 안에 다시 불을 피웠다. 불빛이 천장을 비추었고, 그 안에는 수천 마리의 박쥐가 있었다. 동굴 안이 따뜻해지고 불의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자, 동굴 천장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동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박쥐가 날아들어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라자루스는 껄껄 웃었다. 그는 일어서서 팔을 뻗었고, 날개들이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감쌌다. 날개들은 그의 옷자락에 앉았다가 몸 위로 기어올라 다시 날아갔다. 라자루스는 후드를 벗어 던지고 활짝 웃는 얼굴을 드러냈다. 박쥐들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기어 다니자 그는 가면을 밧줄 허리띠에 꽂았다. 라자루스는 박쥐로 뒤덮인 팔을 들어 올린 채 동굴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껄껄 웃는 소리는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로 변했다. 라자루스는 펄럭이는 날개의 회오리 속에서 동굴 안을 춤추듯 돌아다니며, 마치 술 취한 오디노처럼 히스테릭하게 웃고 비틀거렸다.

동굴 밖, 오베르뉴 지방 동부의 황금빛 언덕 너머로 경이롭고, 눈에 띄지 않으며, 짧게나마 펼쳐진 드라마가 있었다. 프랑스의 모든 산 중에서, 떠오르는 달빛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 듯했다. 겉보기에 낯선 사람이었다.

그로테스크 ~ 고딕 서사시 (저자: GE 그레이븐) || 제9장 || 온라인 무료: <https://www.gothicnovel.org> 모든 권리 보유 (c)1998 - 미국

산은 입을 크게 벌리고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박쥐 떼를 뿔어냈고, 박쥐들은 곧 산비탈을 뒤덮었다. 그러나 박쥐들은 곧 나무 꼭대기를 넘어 사라졌고, 한때 메아리치던 산의 웃음소리는 서서히 슬픔의 울부짖음으로, 고통과 외로움의 끔찍한 절규로, 숨 막히는 고통과 험덕임으로 변해갔다.

끊임없는 통곡 소리, 그리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소음으로 변해가는 그 소리는 너무나 괴로워서 달조차도 내려다보며 울부짖는 산의 입을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제 9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